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백만 명 중에 단 한 명이 경험한 일, 백만 명이 공감한다면?

글 권혁란 (도서출판 이프 출판부장, 페미니스트 저널 <이프> 전 편집장)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전2권)

로렌 와이스버거 지음 | 서남희 옮김 | 문학동네 | 1권 328쪽, 2권 344쪽 | 값 각권 8,500원

뿐, 공상맞지 않고 환상적인 내용의 소설책을 발견했다면 그 어느 여성이 지갑을 열지 않고 지나가겠는가.

그리하여 칙릿(Chick-lit)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젊은 여성들의 핸드백 속에, 책상 위에 올라앉게 된다. 아가씨 소설, 소비를 조장하는 가벼운 소설, 패션을 다루었으나 패션세계의 일에 대한 성찰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아냥, 문장이나 문체는 보잘것없다는 폄하를 받기도 한 이 소설은 끊임없이 투덜거리고 징징거리고 교묘한 합리화로 일관하는 스물세 살의 직장 초년생 여자를 통해 교묘하고 희한한 공감을 이끌어 낸다.

요즘 여성들은 영리하다. 소설책 한권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도 배울 수도 없다는 것쯤은 다 알고 있다. 이 정도의 소설에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쓱쓱 빼먹고 즐길 것 즐기고, 버릴 게 있다면 적절히 취사선택할 줄도 안다. 비록 사십이 넘었지만 일시에 이십년 전의 젊은 그 어느 날로 돌아가 보게 만든 소설을 읽는 도중 밑줄을 꽤 많이 그었다. 그 밑줄 밑에 요즘 유

각종 설문조사 자료를 보면 젊은 여성들은 인생에서 '자기 계발을 통한 성공적 커리어 형성'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는다. 그녀들은 사회에 발을 내딛자마자 성공하기를 꿈꾼다. 성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성공할지, 그 길로 가는 도정에 디딤돌은 무엇이며 걸림돌은 무엇인지 간절히 알기 원한다. 살아가야 할 긴긴 세월이 놓여있는데 일과 미래는 오리무중일 때, 암중모색 중일 때, 두리번거리는 불안한 눈앞에 자기와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 여성의 이아가 들어있는 책이 핀다면? 무언가 하나라도 배우고 싶을 때, 지친 날들에 위로 받고 싶을 때, 상사와 동료와의 만남에 지침서가 필요할 때, 거두절미하고 그저 달콤한 환상이 필요할 때 서점의 판매대에 놓여있는 화려하고 가볍고 예

행하는 식으로 공감 댓글을 써보았다. 아마도 이런 부분에 젊은 여성들이 공감했으리라 생각하면서.

고작 이런 일이나 하려고 사 년 동안 수많은 책과 시나리오와 소설과 시를 읽고 비평했던가? 고작 박쥐같이 생긴 조그만 하얀 불독이나 달래줄 기회를 잡으려고? 엄청나게 비싼 남의 고급차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애쓰려고? 황홀한 삶이로군. 참으로 바라던 삶이야.

-정글 같은 세상에 나는 홀몸으로 서 있다.

우리는 모두 소위 '이런 일'을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게 아니었다는 걸 홀연 깨닫는다.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었었다. 보다 중요하고 보다 의미 있고 보다 행복한 일이. 그러나 어쩌면 평생을 이런 일만 하다가 죽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 여기는 패션 잡지사고 별달리 재미있는 것은 없지만 끔찍한 경제잡지 같은 데보다는 훨씬 낫잖아. 내 이력서에 런웨이라는 이름을 박아 넣은 영광을 갖게 되면, 언젠가 뉴욕커에 응시할 때 훨씬 유리할 거야.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두박두박 걸어가야 한다.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 차선인지 최악인지 차악인지 모른다. 가지 않은 길만이 수두룩할 땐 앞에 놓인 길을 일단 걸어가 봐야 한다.

앤드리아, 넌 똑똑하고 글도 잘 써. 어디 가서든 똑 부러지게 일할 거야.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게 꿈에 대한 배신은 아니야. 당연히 쌓아야 하는 경험이지. 런웨이에서 일년 일하는 게 딱 데서 삼년간 편집 어시스턴트 일하는 거랑 맞먹는다고 했잖아. 안 그래?

-내 욕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헤어질 수밖에. 맨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이 정도의 지지와 인정은 남자친구가 해 줄 수 있다. 너는 해낼 수 있다고, 그 경험은 소중한 거라고 용기를 북돋아준다. 그러나 너무 열심히 일하면, 잠시 그를 잊어버리면 그 애인은 말한다. "넌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고 있어"라고. 그런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다. 도덕적 판단도 선택도 내가 내린다. 무엇을 잃고 얻을 것인가 까지도.

엘리베이터는 행복하다는 듯 아무 일 없이 위로 올라갔다. 사무실 문 앞에 서는 순간, 그만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건 제쳐놓더라도, 딱 일년만 이일을 하면 된다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진정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일년, 열두 달, 오십이 주, 삼백 육십 오일만 이 쓰레기 같은 곳에서 견디면 된다.

-이걸 견딘다면 앞으로 못 견딜 일은 없을 거야. 그래. 일단은 견뎌야 한다. 시간은 흘러갈 것이고 그건 그냥 흘러가지

는 않을 것이다. 무언가 중요한 가르침 하나는 주고 지나갈 것이다.

"미친 것은 그녀예요. 에밀리." "당신이 아니라 그녀라고요. 세련된 옷은 엄청나게 가졌을지 몰라도, 그녀는 속이 빈, 천하고 못된 여자에 불과해요. 미란다에게 친구가 하나도 없는 거 알아챘어요. 에밀리? 늘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들이 전화하지만, 아이들이나 일 얘기, 결혼 생활 얘기 같은 건 전혀 안 하잖아요. 그들은 단지 뭔가 필요해서 그녀에게 전화할 뿐이죠. 물론 멋있어 보이긴 하죠. 하지만 누가 당신한테 그런 이유로만 전화한다고 생각해봐요."

-성공하고 돈 많고 멋진 여자들은 외롭고 못돼먹었고 천박하다? 앤드리아는 상사 미란다를 그렇게 판단한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로 선택한 여자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외롭고 못돼먹었고 천박한 여자도 많다는 걸 잊지 말아라.

난 내가 '배운' 수많은 것을 모두 쏟아내고 싶은 욕구를 눌러야만 했다. 온 도시를 뒤져 가게 하나를 찾는 방법, 원출처에 대한 실마리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열두 개쯤 되는 신문을 뒤지며 레스토랑 리뷰 기사를 찾는 방법, 우리 부모님의 경험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어린 여자아이들의 마음을 사는 법, 내게 필요한 것을 제때 얻기 위해 이민자 출신의 음식배달원 소년에서부터 출판사 편집자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든 애원하거나 소리 지르거나 설득하거나 울거나 압력을 가하거나 구워삶거나 아첨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나 "그건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은 내게 허락된 말이 아니므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한 시간 내에 완수해 내는 방법. 그야말로 배움으로 넘치는 일년이 아닐 수 없었다.

-악마 같은 직장 상사를 통해 배운 것들이 이 정도라면 된 것이다. 세상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은 없다. 나 아니면 누군가가 해야 하는 일이다. 일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

카푸치노를 다 마시자 새로운 힘이 솟아났다. 나는 다양한 기사가 남긴 내 포트폴리오를 챙겨서 엘리야스 클라크 빌딩으로 향했다. 나는 회전문을 부딪칠 준비를 했다.

-Let's Get It On. 마빈 게이의 노래를 부르며 뛰쳐나온 바로 그곳으로 다시 뛰어 들어가면 된다. 부딪칠 각오를 하고, 서두르거나 우왕좌왕하지 않고 챙길 것은 챙기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리고 기운 차리고, 자, 즐겨 봐요. 🎵